

영국, 유기농식품 판매액 대폭 증가

영국의 유기농산물 홍보 및 인증기관인 토양협회(Soil Association)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영국 유기농식품 판매가 작년에 비해 10% 이상 상승하였다고 한다. 유기농식품의 소매량은 현재 11억 2,000만 유로이고 한주에 200만 유로씩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성장률은 일반 식료품시장의 두 배에 달한다.

얼마전 동 협회는 유기농업부문 평가서인 ‘2004 유기농 식품·농업 보고서(Organic Food and Farming Report 2004)’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슈퍼마켓을 통해 판매되는 유기농식품 소매비율은 지난 2년동안 1% 하락했고, 점차 소비자들은 농업생산자에게서 직접 구매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한다. 박스스킴(box schemes), 파머스 마켓(farmer's market), 농가 판매장(farm shop)을 통한 유기농식품 판매량이 16%까지 급속히 성장하였고, 현재 연간 1억 800만 유로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다.

영국 유기농산물 총 재배 면적의 반 이상이 여전히 스코틀랜드에 집중되어 있고, 전체 유기농업 농가 및 식품 기업의 5분의 1 이상이 잉글랜드 남서 지방에 그 본부를 두고 있다. 유아용 비유기농 식품 시장이 소폭 축소된 반면, 유아용 유기농 식품 판매량은 6% 가까이 성장하여 여전히 인기를 누리고 있다. 현재 판매되는 유아용 식품의 거의 절반 정도가 유기농산물을 원료로 이용하고 있다.

유기농 닭고기 판매는 계속 증가하여 2003년에는 전체 가금육 판매량

450만 마리 중 30%인 약 100만 마리까지 증가하였다. 유기농 닭고기는 슈퍼마켓에서 거의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판매가 증가한 것이다. 영국토양협회는 내년에 유기 가금류가 유기농축산 분야에서 가장 빠른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비유기농 닭고기는 10%가 수입되지만 유기농 닭고기는 수입되지 않는다. 일반적인 유기농 시장의 모습이 모두 이러한 것은 아니다. 동 협회는 지난 몇 년간 유기농식품 수입량이 꾸준히 감소해 오고 있음에도 2003-04년 유기농 식품 수입량은 56%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영국 유기농 쇠고기의 5분의 1이 수입된 것이고, 수확기에도 감자, 당근, 양파, 사과, 배는 대형 소매업자들에 의해 여전히 수입되고 있다. 그럼에도 영국 정부는 2010년까지 수입량을 30%로 낮추기 위해 소매업자들을 지원하고 있다.

동 협회 이사 Patrick Holden는 말한다. “유기농 시장은 생산자 직거래를 통해 그 지역의 신선한 고품질 제철 농산물을 구매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주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중요 슈퍼마켓들은 이러한 소비자의 성향에 주목하여 매장 내에 그 지역에서 생산된 유기농 식품의 양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유기농 식품을 공급하는 곳은 중·소규모의 농장입니다.”

동 협회는 Marks and Spencer, Sainsbury's, Waitrose가 수입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영국 농민들에게서 유기농식품을 더욱 많이 구매하려 해왔다고 말한다. 하지만 동 협회는 판매를 늘리기 위한 성급한 유기농 식품 가격 조정은 의도한대로 되지 않고, 오히려 생산자에게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만약 슈퍼마켓들이 공급자에게 지급하는 가격을 크게 낮춘다면, 유기농 식품 공급원인 소규모 복합 영농의 가족농들은 더 이상 슈퍼마켓에 유기농 식품을 공급할 수 없을 것입니다.”라고 Patrick Holden는 덧붙였다.

자료: 영국토양협회(Soil Association)
(채종현 pooh4514@hotmail.com 02-952-0729 지역아카데미)